



농협 진안군지부, 농·축협 한마음 일손돕기 실시

NH농협 진안군지부(지부장 변성섭)와 진안관내 농·축협 임직원들은 23일 백운농협 성수지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현장을 찾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진안관내 농·축협 발전상생협의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선 직원들을 중심으로 2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멜론 출하를 위한 선별 및 박스 포장 작업에 힘을 보탰다.

이번 활동은 매년 범농협 차원에서 전개하는 “농촌 일손돕기 집중지원” 운동으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농심전심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변성섭 지부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멜론의 고품질 유통을 돕는데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농어촌공 부안지사, 5개 기관과 ‘쓰담쓰담 캠페인’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원중)는 23일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안사무소, NH농협 부안군지부, 번산보도국립공원사무소 등 5개 기관 80여명이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에 위치한 개암저수지에서 ‘쓰담쓰담’ ESG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ESG 캠페인으로, 공사 직원들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플로깅(걸거나 뛰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활동)을 통해 저수지 수질보호 및 주변환경보호를 하는 활동이다.

이날 NH농협 부안군지부는 농협의 중점 사회운동인 ‘농심전심운동’을 함께 홍보, 국립공원사무소와의 생태계교란 종 제거로 의미있는 행사가 됐다는 것. /부안=김석진기자

남원 부림석재, 추석 맞아 도동동에 물품 기탁

남원시 도동동 관계자는 관내 부림석재(대표 정형국)가 올해 추석도 변함없이 라면 100박스와 화장지 100팩을 도동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부림석재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지역사회와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기탁된 물품들은 도동동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에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동행정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정형국 대표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운봉읍 지사협, 김부각 나눔 사업 진행

남원시 운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추석을 맞아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구 등 총 102가구(200만원 상당)에 김부각 나눔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명절을 앞두고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정을 전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지역 특산물 중 하나인 김부각으로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김부각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에 필요한 지원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신동열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얼굴없는 천사를 위한 나눔 실천

포스코이앤씨, 천사축제 축제조직위에 물품 전달

얼굴없는 천사를 기리는 축제가 10월 24일 열린 예정인 가운데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상생의 나눔실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얼굴없는 천사축제가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축제조직위원회에 물품을 전달해 얼굴없는 천사의 의미를 한층 더 일깨워주고 있다.

23일 천사축제 조직위원회(위원장 노동식)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천사마을희망문화센터에서 ‘제15회 얼굴없는 천사축제 후원물품 전달식’을 열고 포스코이앤씨로부터 백미(10kg) 100포와 각티슈 1,004개를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물품은 축제 기간 주민 참여 행사 등에 활용될 예정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뜻을 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사축제는 24번째 이어지고 있는 ‘얼굴없는 천사’의 숭고한 선행을 기리고 나눔의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10월 4일 천사의 날에 개최돼 왔으나 올해는 추석 연휴로 인해 일정이 조정돼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포스코이앤씨 서부사업단 김병준 단장은 “포스코이앤씨는 늘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및 상생하면서 슬픔은



반으로 기쁨은 두배로라는 얼굴없는 천사정신을 기리는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한다”며 “천사마을의 따뜻한 나눔전통을 회사차원에서도 작은 정성을 보내고 아름다운 뜻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웃과 기업이 동참하는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동식 천사축제 조직위원장은 “귀한 후원물품을 기탁해주시는 포스코이앤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권희성 기자

전협 전북, 추석 맞아 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 전달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가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나섰다.

협회는 2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행정부지사를 찾아 성금 2,000만원을 전달하며,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다.

소재철 회장은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행복의 운기를 나누는 데 건설업계가 앞장사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꾸준한 나눔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준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성금은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 소외된 이웃들이 보다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도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돼, 명절의 풍성함과 따뜻함을 함께 나누는 마중물이 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2009년부터 매년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소외계층 지원 성금을 기탁해왔다. /오상근 기자



전북자경위, 도·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과 간담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3일 도청 세미나실에서 ‘도·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 폭력 예방과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과 전북경찰청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심리검사, 자원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위기청소년의 정서 회복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 자치경찰과의 협업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연주 위원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고창흥덕농협 임직원들 무주군에 고향사랑 기탁

전북특별자치도 고창흥덕농협 임직원들이 지난 23일 무주군에 고향사랑 기부금 5백만 원을 기탁했다.

이 자리에는 김병석 농협은행 무주군지부장과 곽동열 무주농협 조합장, 김성근 구천동농협조합장 등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무주군을 찾은 백영종 고창흥덕농협 조합장은 “무주군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농협 임직원들이 뜻을 모았다”라며 “무주군과 맺은 좋은 인연이 조합과 지역주민, 나아가 두 지역 전체로 확산돼 기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2005년 설립된 고창흥덕농협에는 53명의 임직원이 본점과 지점, 하나마트 등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조합원 수는 2천7백여 명에 이른다. 무주군에는 2023년도에도 고향사랑기부금 5백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메가MGC커피 무주군청점, 장학금 1백만원 기탁

메가MGC커피 무주군청점에서 23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 무주군수)에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조은영 대표는 “개업한 지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용해 주시는 무주군청 직원들과 학생 그리고 지역주민들 덕분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며 “오늘 전달한 장학금에는 감사와 지역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소망을 함께 담았고 앞으로도 기부를 이어가고 싶다”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은 지난 2009년부터 총 118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장학금과 기숙학원비 이용, 인터넷 강의 수강료 지원 등 지역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애학심을 고취할 수 있는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장학금은 총 5,918명에게 47억300만원을 지급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창특수지원센터, 학생 맞춤형 진로·문화 체험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 산하 고창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관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진로체험 활동이 따뜻한 울림을 주었다. 지난 17일에는 전북인공지능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지원청에서 바리스타 모의실습을 진행하였고, 23일에는 전남 목포에서 진로·문화 체험 현장체험학습이 이어졌다.

바리스타 실습에서 학생들은 직접 원두를 갈고 커피를 추출하며 작은 성취의 기쁨을 느꼈다. 이어진 목포 현장체험에서는 ‘미술여행’이라는 진로 프로그램과 해상케이블카 체험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무대 위 마술사의 공연을 보며 꿈을 키우고 목포의 푸른 바다 위 케이블카에 오르면 세상을 향한 자신감을 배웠다.

한숙경 교육장은 “학생들이 교실을 넘어 진로의 세계와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모습이 참 자랑스럽다”라고 전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전주시 금암동 새마을부녀회, 이웃돕기 물품 전달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암동 주민센터(동장 이은정)를 방문해 36만원 상당의 이웃돕기 물품(김 24박스)을 전달했다.

금암동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명절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후원품 전달 및 지역사회 환경 정비 등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임지순 금암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권희성기자



남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남원시는 23일, 남원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지원기관이 주관한 이 교육의 주요 내용은 ‘고령친화도시, 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의 이해’이며, 역량강화를 위해 남원과 임실 지역 생활지원사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교육은 수행 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해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노암동 지사협, 노암동에 기부물품 전달

남원시노암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차미화)는 추석을 맞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염창길)에서 200만원 상당의 라면과 쌀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기탁된 물품들은 각 통장들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관내 취약계층 88 가정에 지원될 계획으로,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차미화 노암동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탁해 주신 물품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을 맞이하길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후원 물품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담아 1일1가구 방문 시 전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